PO 수급난 수요기업 부담 가중

96년 한국포리올 5만톤 공급 그칠 듯 … 98년이후 정상화 가능

국내 유일의 PO 생산기업인 유공옥시케미칼이 PG 및 PPG 생산강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포리올 등 PO 수요기업들의 원료 확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9만톤의 PPG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포리올은 PO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가동률 하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dacted]

구 분	1993		1994		1995	
	물 량	증감률	물 량	증감률	물 량	증감률
생 산	111,381	19.8	106,036	▽4.8	139,000	31.1
내수판매	88,247	41.4	100,546	13.9	70,000	▽30.4
수 출	21,772	▽13.9	8,478	▽61.1	8,000	▽5.6
수 입	17,895	▽5.9	16,033	▽10.4	15,700	▽2.1
국내수요	106,142	30.3	116,579	9.8	132,000	13.2

이에따라 한국포리올은 수입량 증가로 부족분을 대체할 방침을 타진중이나 94 95년 수입량이 1만5700톤임을 감안할때 이또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옥시케미칼은 96년 한국포리올에 5만톤의 PO를 공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물량은 94년 5만8000톤, 95년 6만5000톤 수요를 기록했던 한국포리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인데다 96년 7만1000톤 수요예상에도 2만1000톤이 밑도는 양이다.
이처럼 물량수급에 제한이 걸린 한국포리올은 유공옥시케미칼과 수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원활한 원료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없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공옥시케미칼은 96년10월 15일간의 정기보수일정을 계획, PO 공급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공옥시케미칼이 현 13만톤 생산능력을 98년 6만톤 증설한 19만톤으로 확대할 때까지 수급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같이 PO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은 유공옥시케미칼이 PG 및 PPG 등 자가소비량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다 동성화학의 PPG 신규참여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95년 13만9000톤을 생산, 내수판매 7만톤, 수출 8000톤 등을 제외한 5만8000톤을 PG 및 PPG 제조용으로 자가소비했던 유공옥시케미칼은 96년에는 95년대비 3000톤 늘어난 6만1000톤을 자가소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옥시케미칼의 자가소비량 확대는 건축경기가 96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PO 자가생산에 따른 PG, PPG 수직계열화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총수요 3만톤 부동액시장의 원료를 유공이 EG에서 PG로 전환하는 등 향후 PG 수요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PO 수급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동성화학이 95년말 2만톤규모로 PPG 시장에 신규참여, 유공옥시케미칼로부터 PO를 공급받는 원인도 꼽히고 있다.
이같은 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포리올 등은 유공옥시케미칼이 PO 수급이 타이트한 점을 이용, 가격인상을 꾀하려는 속셈으로 분석,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dacted]

구분	기 업	생산능력	기술선	증설계획	비 고
P O	유공옥시케미칼	130,000	Arco	55,000	1998
P G	유공옥시케미칼	40,000	Arco	10,000	1996
PPG	한국포리올	90,000	Sanyo	30,000	PU System
	미원유화	27,000	Dow	-30,000	MDI 연계사업
	유공옥시케미칼	30,000	Arco	20,000	1997
	동성화학	-	-	-	1995
	소 계	137,000	-		-

유공은 98년 6만톤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는 Shell이 14만톤 생산능력(네덜란드)에서 97년 가동계획으로 싱가폴에 역시 14만톤공장 건설을 추진중이고 Dow 및 Arco도 각각 20만톤 이상씩 증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95년 국내 PO 생산은 13만9000톤으로 94년 10만6000톤에 비해 31.1% 증가한 가운데 국내수요는 18만3000톤으로 94년 11만6600톤보다 22.6% 늘어났다.
수입은 94년과 같은 1만5700톤에 머물렀고 수출은 8000톤을 기록, 94년 8500톤에 비해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O 가격은 파이프라인 공급가 기준 94년 Kg당 770원에서 95년12월 내수 940원, 로칼 880원에 거래되었다.

<화학저널 1996/4/1>